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박차...세계적인 치유도시로 키울 것”

재선 성공 유두석 장성군수 민선 7기 구상

고려시멘트 문제 해결하고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모든 공약 꼼꼼히 챙기고 매력적인 옐로우시티 만들기
장성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각오로 일할 것

“장성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모든 공약을 꼼꼼하게 챙기는 약속 잘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 군수는 민선 6기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컬러 마케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로 장성 재장조의 기반을 마련한 점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개최해 100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한 점 ▲장성 역대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문제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반영해 건립 절차를 밟고 있는 점 ▲‘휴도관’, ‘도방 낚추기’ 사업과 같은 독자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실시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유 군수는 “민선 7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아쉬운 점은 보완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군민과 함께! 매력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으로 군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

거 과정에서 91개 공약을 했다며 이 가운데 중요한 사업으로는 고려시멘트 문제 해결과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들었다

고려시멘트 문제와 관련 유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고려시멘트 부지에 광주 배후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고 약속했다”며 “고려시멘트가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기업활동도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시멘트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폐쇄를 강요할 순 없다”며 “그래서 누구의 희생도 없는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광주의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단지를 만들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예상 사업비만 3500억~4000억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에도 파급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국립심혈관센터 본원은 장성 나노단지 인근에 세워지는데 ‘치유의 숲’으로 불리는 죽령산에 국립심혈관센터 본원을 만들어 치유와 재활 기능을 담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계획대로 되면 장성이 전 세계적인 ‘치유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군과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토지이용계획 확정과 건립자금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관련 “황룡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장성의 경제와 문화, 관광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장성의 미래 먹거리로 천연고찰 백양사나 전국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인 죽령산처럼 기존에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과 잡풀만 우거진 채 방치돼 있다가 아름다운 꽃강으로 변신한 황룡강처럼 그동안 가치를 몰랐던 자원을 재발견하는 것,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처럼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 세 가지를 들었다.

유 군수는 올해 가을에 열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군정 방침

- ▲신뢰받는 열린 행정
- ▲함께하는 맞춤형지
- ▲활기찬 도농 복합도시
- ▲풍요로운 부자농촌
- ▲찾아오는 옐로우시티

그는 “지난해 100만 관광객이 찾아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10억 송이 꽃을 심은 꽃강으로 유명세를 탔다”며 “올해는 지난해 축제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대한민국 꽃 축제의 롤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정책과 관련해 유 군수는 농사만 잘 지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비 추가와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등을 통해 영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좌우명이 ‘겸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라고 소개하는 유 군수는 “항상 좌우명을 되새기며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장성, 오로지 군민만 보고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당도 뛰어난 장성 멜론 소비자 호응 좋네

품질 좋고 당도가 뛰어난 장성 멜론(사진)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원예작물 신 품종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한 얼스그라프프리 품종 멜론이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얼스그라프프리는 다른 멜론과 달리 저장성이 뛰어나다. 또 네트 형상이 잘돼 상품성은 물론 당도와 품질이 좋고 특히 온난화 기후에 알맞고 흰가루병에 강해 약제 방제 비용은 물론 일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 적합한 작목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국내 멜론 품종인 얼스그라프프리를 육성해 멜론 시장의 자급율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전남도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에 올해 초 북일면의 3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0.5ha면적의 멜론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희삼씨는 “멜론은



고온에서 재배할 수 있고 다른 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농업시장에서 비전이 있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품질과 당도가 뛰어나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참여 농가가 재배에 집중할 수 있게 판로 확대와 유통을 지원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브랜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적극 나서

한달간 주민제안사업 공모

장성군이 주민참여예산제 강화에 적극 나섰다.

장성군은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며 군민은 누구나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경비나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 장성군 시설의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장성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담당자에게 제출해도 되고 작성한 신청

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도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로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군의회가 의결하면 사업 실행이 최종 확정된다. 이와함께 군은 보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주민 제안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나온 주민 의견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 제안 사업 공모와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건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유동인구 많은 5곳에 ‘그림자 가로등’ 설치

장성군은 장성역 광장, 버스터미널, 군청 정문, 서삼교, 북이면 사거리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곳에 그림자 가로등(사진)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림자 가로등은 땅바닥이나 벽면에 문자나 그림형상을 투영하는 불빛을 비춘다.

여러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성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장성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구로 빛을 밝힌다.

또 ‘당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다 잘



될거야’,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힘내자!!’ 등 감성을 자극하고 기운을 돋우는 문구를 재웠다.

장성군 관계자는 “친근한 메시지 덕분에 주민 반응이 좋다”며 “그림자 가로등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홍보 문구를 주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